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 지역적 특색에 따른 모델 개발 -

장명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contents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4
3. 기대효과	5
II.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7
1.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9
2. 자치구별 결혼이민여성 거주분포	10
3. 자치구별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여성 증감추이	13
4.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16
II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추진전략	21
1. 취·창업지원 사업의 정책 지향점	23
2. 취·창업관련 기관들의 연계강화	25

IV.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29
1.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31
2. 적합 직종과 업종에 대한 예시	32
V. 취·창업지원 모델 개발	37
1. 취·창업 지원 연계 모델 개발(시범실시)	39
2. 취·창업교육프로그램 실시	41
V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51
참 고 문 헌	55

● 표 목차

■ 표 1 ■ 서울시 결혼이민자 출신국적별 현황	10
■ 표 2 ■ 자치구별 결혼이민여성 출신국적 분포(2009년도)	12
■ 표 3 ■ 서울시 자치구별 결혼이민자 현황	15
■ 표 4 ■ 결혼이민여성들의 적합 직종 및 업종	31

● 그림 목차

■ 그림 1 ■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 1, 2순위	18
■ 그림 2 ■ 미취업사유	19
■ 그림 3 ■ 정책지향점	24
■ 그림 4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관련기관들의 연계	27
■ 그림 5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관련기관들의 연계 모델	41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필요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은 언어문제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됨.
 -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은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 등 초기적응단계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이 사회주역으로서 가장 필요한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취·창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미한 상태임.
 - 결혼이민여성들의 높은 취업욕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이 ‘보호’에서 ‘자립자활’로의 전환이 필요함.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이들을 ‘그들이’ 아닌 ‘우리’로 인정하고 ‘지원’에서 ‘공생’을 넘어 평등한 동반자로서의 ‘통합’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적합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 지역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국적, 학력, 수요 등과 그 인근 지역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수요처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관련기관들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델개발 및 보급
 -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그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청, 직업학교 및 전문대학, 고용지원센터 등과의 연계강화가 필수적임.
 - 관련기관의 연계나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취·창업모델 개발

- 결혼이민여성이 많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교육 프로그램실시와 취·창업으로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 도모
 -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분포와 관련기관들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고 수요처의 수요조사와 다년간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합한 취·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 취·창업교육 후 취·창업으로의 적극적인 연계와 취·창업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정착 도모

2. 연구 방법

- 기초통계 수집 및 문헌연구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
 - 조사대상: 서울지역 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기관의 종사자
 - 조사규모: 90개 기관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기 간: 2008. 4. 28 - 2009. 5. 25
 - 조사내용: 경제활동지원프로그램 지원 현황 및 운영, 향후 적합 직종아
이템 등
- 결혼이민여성 그룹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함.
 - 조사대상: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결혼이민여성
 - 조사규모: 관련기관 실무담당자들이 추천한 결혼이민여성 20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인터뷰
 - 조사기간: 2009. 6. 3 - 6. 13
 - 조사내용: 결혼이민여성 프로그램 참여 경험, 취업자 근무환경,
적합 직종 및 창업 아이템 등
 - 일정지역(동작구 중심 인근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수요조사
및 사업체 수요조사
 - 동작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관련기관 전문가 회의

3. 기대효과

- 결혼이민여성과 사업체의 수요도를 조사하여 소수 정예의 맞춤형 직업교
육의 진행으로 중도탈락률 방지 및 양성에 효과성 증대
- 지역 특성에 맞는 결혼이민여성 적합 직종 개발
- 지역 관련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지역내 취·창업모델 개발

- 교육후 취·창업으로의 연계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자신감 고취 및 롤 모델 제시
-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여

II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II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1.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 전체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9년 현재 167,09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5.7% 증가했으며 이중 결혼이민여성의 수는 149,853명으로 89.6%임.
-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자수는 2009년 7월 현재 총 39,275명이며, 이 가운데 82.9%인 32,558명이 결혼이민여성으로 ‘여성이주화’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
 - 결혼이민여성을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미국, 몽골, 태국 순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전체 결혼이민여성의 76.7%가 중국 출신자로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 10명 중 약 8명이 조선족 내지 한족출신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9.3%(3,042명), 일본 3.5%(1,149명), 필리핀 3.0%(991명), 태국 1.0%(3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국가의 출신자는 2.9%인 959명에 이르고 있음.
-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수의 증가수치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2,743명 증가하여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증가수치이며 결혼이민남성들은 오히려 34명이 줄어들었음.

【 표 1 】 서울시 결혼이민자 출신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전체('08)	36,532	28,175	1,515	1,158	362	1,657	743	212	64	637	211	1,798
전체('09)	39,275	29,653	160	1,340	458	3,094	1,042	318	66	703	230	2,211
비율	100	76	0.4	3.4	1.2	7.9	2.7	0.8	0.2	1.8	0.6	5.4
증가수	2,743	1,478	-1,355	182	96	1,437	299	106	2	66	19	413
남성('08)	6,754	4,409	739	174	26	57	63	10	8	347	19	902
남성('09)	6,717	4,685	38	191	17	52	51	2	8	407	14	1,252
증가수	-34	276	-701	17	-9	-5	-12	-8	0	60	-5	-350
여성('08)	29,778	23,766	776	984	336	1,600	680	202	56	290	192	896
여성('09)	32,558	24,968	122	1,149	441	3,042	991	316	58	296	216	959
증가수	2,780	1,202	-654	165	105	1,442	311	114	2	6	24	63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실태조사」 재구성(2009.07)

2. 자치구별 결혼이민여성 거주분포

- 2009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영등포구 3,494명으로 가장 많으며 구로구(2,245명), 관악구(1,943명), 금천구(1,678명)으로 나타남.
- 출신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중국 출신(조선족 포함)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영등포구 3,107명, 구로구 1,901명, 관악구 1,542명, 금천구 1,431명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서남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은 모든 자치구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구로구 등 동북권과 서남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¹⁾

1) 서울특별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분류한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관련 각종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분류내용은

- 일본 출신 결혼이민여성은 동대문구, 송파구, 강서구, 관악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은 관악구, 양천구, 은평구 등 서남권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남.
- 결혼이민여성을 출신국적별 비율로 보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중국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등포구로 88.9%이며, 그 다음으로는 금천구 85.3%, 구로구 84.7%, 광진구 81.2%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10명 중 8명은 중국 출신자로 나타남.
 - 베트남 출신의 경우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이 1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북구 13.2%, 강북구 12.8%, 은평구 12.0%에서 높게 나타남.
 - 일본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거주비율은 서초구 8.5%, 강남구 8.3% 에서 높았으며, 동대문구 6.3%와 용산구 6.2%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는 양천구에서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북구 4.6%, 강서구 4.5%, 도봉구와 은평구에서 각각 4.2% 순으로 높았음.
-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는 영등포구와 금천구, 구로구 등과 같은 서남권 지역에, 베트남 출신은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등과 같은 동북권 지역에 거주비율이 높음.

다음과 같다.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3개 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8개 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3개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7개 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구

또한 일본 출신은 서초구, 강남구 등과 같은 동남권 지역에,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는 양천구, 강서구 등 서남권 지역과 성북도봉구 등 동북권 지역에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국적은 적합 직종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취·창업프로그램을 개발 시 차별성을 두어 개발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표 2 ■ 자치구별 결혼이민여성 출신국적 분포(2009년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서울시	32,558 (100.0)	24,968 (76.7)	122 (0.4)	1,149 (3.5)	441 (1.3)	3,042 (9.3)	991 (3.0)	316 (1.0)	58 (0.2)	296 (0.9)	216 (0.7)	959 (2.9)
종로	677 (100.0)	502 (74.1)	2 (0.3)	17 (2.5)	15 (2.2)	65 (9.6)	15 (2.2)	6 (0.9)	0 (0.0)	19 (2.8)	4 (0.6)	32 (4.7)
중구	595 (100.0)	419 (70.4)	7 (1.2)	23 (3.9)	22 (3.7)	60 (10.1)	9 (1.5)	7 (1.2)	0 (0.0)	9 (1.5)	9 (1.5)	30 (5.0)
용산	874 (100.0)	569 (65.1)	7 (0.8)	54 (6.2)	11 (1.2)	73 (8.3)	31 (3.5)	9 (1.0)	0 (0.0)	28 (3.2)	37 (4.2)	55 (6.3)
성동	1,186 (100.0)	912 (76.9)	7 (0.6)	23 (1.9)	23 (1.9)	130 (11.0)	37 (3.1)	14 (1.2)	0 (0.0)	7 (0.6)	8 (0.7)	25 (2.1)
광진	1,433 (100.0)	1,164 (81.2)	1 (0.1)	46 (3.2)	15 (1.0)	111 (7.7)	39 (2.7)	7 (0.5)	3 (0.2)	5 (0.3)	8 (0.5)	34 (2.4)
동대문	1,368 (100.0)	936 (68.4)	1 (0.1)	86 (6.3)	29 (2.1)	195 (14.2)	38 (2.8)	18 (1.3)	2 (0.1)	7 (0.5)	10 (0.7)	46 (3.4)
중랑	1,602 (100.0)	1,211 (75.6)	6 (0.4)	35 (2.2)	46 (2.9)	176 (11.0)	51 (3.2)	23 (1.4)	3 (0.2)	0 (0.0)	10 (0.6)	41 (2.5)
성북	1,133 (100.0)	756 (66.7)	6 (0.5)	49 (4.3)	30 (2.6)	150 (13.2)	52 (4.6)	19 (1.7)	2 (0.2)	15 (1.3)	8 (0.7)	46 (4.1)
강북	1,197 (100.0)	865 (72.3)	3 (0.2)	37 (3.1)	37 (3.1)	153 (12.8)	39 (3.2)	19 (1.6)	2 (0.2)	3 (0.2)	4 (0.3)	35 (2.9)
도봉	929 (100.0)	694 (74.7)	2 (0.2)	34 (3.6)	20 (2.1)	93 (10.0)	39 (4.2)	9 (1.0)	3 (0.3)	2 (0.2)	3 (0.3)	30 (3.2)
노원	1,204 (100.0)	906 (75.2)	4 (0.3)	55 (4.6)	10 (0.8)	121 (10.0)	36 (3.0)	7 (0.6)	1 (0.1)	6 (0.5)	3 (0.2)	55 (4.6)
은평	1,324 (100.0)	961 (72.6)	5 (0.4)	53 (4.0)	20 (1.5)	159 (12.0)	56 (4.2)	15 (1.1)	3 (0.2)	4 (0.3)	14 (1.0)	34 (2.6)
서대문	772 (100.0)	509 (65.9)	18 (2.3)	47 (6.1)	12 (1.5)	84 (10.9)	25 (3.2)	13 (1.7)	4 (0.5)	10 (1.3)	9 (1.2)	41 (5.3)

구분	전체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마포	1,024 (100.0)	728 (71.1)	5 (0.5)	54 (5.3)	14 (1.4)	99 (9.7)	28 (2.7)	12 (1.2)	4 (0.4)	9 (0.9)	11 (1.1)	60 (5.8)
양천	1,192 (100.0)	892 (74.8)	2 (0.2)	53 (4.4)	12 (1.0)	116 (9.7)	60 (5.0)	8 (0.7)	2 (0.2)	9 (0.7)	5 (0.4)	33 (2.8)
강서	1,622 (100.0)	1,245 (76.7)	10 (0.6)	66 (4.1)	12 (0.7)	145 (8.9)	73 (4.5)	14 (0.9)	4 (0.2)	3 (0.2)	9 (0.5)	41 (2.5)
구로	2,245 (100.0)	1,901 (84.7)	2 (0.1)	36 (1.6)	9 (0.4)	169 (7.5)	58 (2.6)	17 (0.7)	3 (0.1)	6 (0.3)	7 (0.3)	37 (1.6)
금천	1,678 (100.0)	1,431 (85.3)	1 (0.1)	19 (1.1)	18 (1.1)	116 (6.9)	37 (2.2)	12 (0.7)	3 (0.2)	3 (0.2)	8 (0.5)	30 (1.8)
영등포	3,494 (100.0)	3,107 (88.9)	6 (0.2)	46 (1.3)	17 (0.5)	190 (5.4)	50 (1.4)	11 (0.3)	3 (0.1)	15 (0.4)	7 (0.2)	42 (1.2)
동작	1,057 (100.0)	817 (77.3)	4 (0.4)	35 (3.3)	10 (0.9)	96 (9.1)	35 (3.3)	15 (1.4)	2 (0.2)	7 (0.7)	2 (0.2)	34 (3.2)
관악	1,943 (100.0)	1,542 (79.3)	8 (0.4)	62 (3.2)	14 (0.7)	164 (8.4)	62 (3.2)	12 (0.6)	4 (0.2)	7 (0.4)	10 (0.5)	58 (3.0)
서초	496 (100.0)	335 (67.5)	2 (0.4)	42 (8.5)	8 (1.6)	19 (3.8)	20 (4.0)	3 (0.6)	0 (0.0)	37 (7.4)	3 (0.6)	27 (5.4)
강남	698 (100.0)	444 (63.6)	4 (0.6)	58 (8.3)	9 (1.3)	52 (7.4)	18 (2.6)	7 (1.0)	1 (0.1)	59 (8.4)	14 (2.0)	32 (4.6)
송파	1,376 (100.0)	990 (71.9)	8 (0.6)	67 (4.9)	15 (1.1)	153 (11.1)	50 (3.6)	25 (1.8)	4 (0.3)	22 (1.6)	8 (0.6)	34 (2.5)
강동	1,439 (100.0)	1,132 (78.7)	1 (0.1)	52 (3.6)	13 (0.9)	153 (10.6)	33 (2.3)	14 (1.0)	5 (0.3)	4 (0.3)	5 (0.3)	27 (1.9)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실태조사」(2009.7) 재구성

3. 자치구별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여성 증감추이

○ 결혼이민자의 증감추이

- 2009년 현재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영등포구로 4,404명(11.2%)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로구 2,912명(7.4%), 관악구 2,396명(6.1%), 금천구 2,076명(5.3%), 강서구 1,913명(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결혼이민자의 증감률을 보면,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동구로 2008년 당시 456명에서 2009년 현재 1,668명으로 265.8%의 증가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양천구가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8년 456명에서 2009년 1,423명으로 역시 212.1%의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냄.
 - 결혼이민자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지역도 몇몇 있었는데, 광진구가 2008년 당시 2,441명에서 2009년 현재 1,675명으로 가장 큰 폭(31.4%)으로 감소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동구 24.5%, 서대문구 22.9%, 은평구 15.8%, 서초구 11.4% 등의 순으로 감소율을 나타냄.
- 결혼이민여성의 증감추이
-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도 영등포구로 3,494명의 결혼이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10.7%에 해당하는 수치임. 그 다음으로는 구로구 2,245명(6.9%), 관악구 1,943명(6.0%), 금천구 1,678명(5.1%), 강서구 1,622명(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전체 결혼이민자 추이와 같은 것으로 역시 양천구와 동작구를 포함한 서남권 지역에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40.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동구로 2008년 377명에서 2009년 1,439명으로 281.7%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양천구가 2008년 386명에서 2009년 1,192명으로 20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 외에도 동대문구가 77.2%, 중구 73.5%, 성북구 61.8%, 마포구 51.7% 등의 순으로 증가율을 보였음.
 - 반면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감소한 지역으로는 광진구가 2008년 당시 1,930명에서 2009년 현재 1,433명으로 가장 큰 폭(25.7%)으로 감소했

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대문구가 24.8%, 성동구 22.7%, 서초구 13.3%, 은평구 12.7% 등의 순으로 감소율을 나타냄.

【 표 3 】 서울시 자치구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8년 (혼인귀화자포함)			2009년 (혼인귀화자포함)			결혼이민자 증감률 (전년도 대비)		2009년 결혼이민자 분포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총계	36,532	6,754	29,778	39,275	6,717	32,558	7.5	9.3	100.0	100.0
종로	911	153	758	824	147	677	-9.5	-10.7	2.1	2.1
중구	625	282	343	716	121	595	14.6	73.5	1.8	1.8
용산	1,127	327	800	1,253	379	874	11.2	9.2	3.2	2.7
성동	1,861	327	1,534	1,405	219	1,186	-24.5	-22.7	3.6	3.6
광진	2,441	511	1,930	1,675	242	1,433	-31.4	-25.7	4.3	4.4
동대문	914	142	772	1,629	261	1,368	78.2	77.2	4.1	4.2
중랑	1,920	206	1,714	1,812	210	1,602	-5.6	-6.5	4.6	4.9
성북	969	269	700	1,312	179	1,133	35.4	61.8	3.3	3.5
강북	1,348	165	1,183	1,330	133	1,197	-1.3	1.2	3.4	3.7
도봉	1,039	126	913	1,041	112	929	0.2	1.7	2.6	2.8
노원	1,588	271	1,317	1,483	279	1,204	-6.6	-8.6	3.8	3.7
은평	1,784	268	1,516	1,502	178	1,324	-15.8	-12.7	3.8	4.1
서대문	1,188	161	1,027	916	144	772	-22.9	-24.8	2.3	2.4
마포	1,001	326	675	1,223	199	1,024	22.2	51.7	3.1	3.1
양천	456	70	386	1,423	231	1,192	212.1	208.8	3.6	3.7
강서	1,582	200	1,382	1,913	291	1,622	20.9	17.4	4.9	5.0
구로	2,949	629	2,320	2,912	667	2,245	-1.2	-3.2	7.4	6.9
금천	2,101	348	1,753	2,076	398	1,678	-1.2	-4.3	5.3	5.1
영등포	3,999	877	3,122	4,404	910	3,494	10.1	11.9	11.2	10.7
동작	1,421	245	1,176	1,307	250	1,057	-8.0	-10.1	3.3	3.2
관악	1,788	306	1,482	2,396	453	1,943	34.0	31.1	6.1	6.0
서초	702	130	572	622	126	496	-11.4	-13.3	1.6	1.5
강남	816	141	675	850	152	698	4.2	3.4	2.2	2.1
송파	1,546	195	1,351	1,583	207	1,376	2.4	1.8	4.0	4.2
강동	456	79	377	1,668	229	1,439	265.8	281.7	4.2	4.2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실태조사」 (2008, 2009) 재구성

4.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 월평균 가구소득

-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²⁾, 결혼이민여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9.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1.6%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 전체의 월수입이 50만원~100만원 미만이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각각 7.4%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열악한 경우는 총 14.4%에 이르며, 결국 월 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보이는 경우는 전체의 45.5%인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생활

- 결혼이민여성 중 직업이 있는 경우는 18.5%에 불과한 반면, 직업이 없는 경우는 81.2%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 10명 중 8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³⁾
- 결혼이민여성의 구직경로는 모국인 친구·이웃의 소개로 인한 경우가 21.8%로 가장 많으며, ‘한국인 친구·이웃의 소개(13.5%)’와 ‘가족 및 친척의 소개(13.5%)’, ‘인터넷, 신문, 지역 정보지 등(11.5%)’, ‘민간 직업알선기관(8.3%)’ 순으로 많아 대부분 사적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공공 행정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3.8%에 불과해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공기관의 활발한 활동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의 긴밀한 연계 등이 요구됨.

2) 이하의 내용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장명선, 이옥경(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참조

3) 동 실태조사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학생(1.1%)과 전업주부(64.1%), 무직자(16.0%)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 근로시간은 1~17시간인 경우가 30.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36~44시간(16.0%), 45~53시간(16.0%), 54시간(16.0%), 18~35시간(14.7%)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가 전체의 32.0%를 차지하는 것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정규직이기 보다는 임시직,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결혼이민여성의 월평균 개인소득을 보면, 50~100만원 미만(41.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0~150만원 미만(21.8%), 50만원 미만(14.1%), 150~200만원 미만(5.8%) 순으로 나타나 100만원 이하가 55.8%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직업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월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관리한다'는 경우가 57.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와 배우자가 함께 관리한다'는 경우가 17.9%로 나타남.
- 직업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근로만족도는 '만족한다'는 경우가 전체의 42.4%('매우 만족한다' 10.3% + '만족하는 편이다' 32.1%)로 '불만족하다' 10.9%('매우 불만족하다' 3.2% + '불만족한 편이다' 7.7%)보다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1순위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23.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하면서 자녀돌보기(20.9%)', '가사일과 병행하기(14.2%)', '낮은 임금(11.9%)', '오랜 노동시간(1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2순위로 꼽은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이 11.2%로 가장 많고, '힘들고 어려운 작업' 10.4%, '언어소통의 어려움' 9.7%,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8.2%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1순위 n=156, 2순위 n=134,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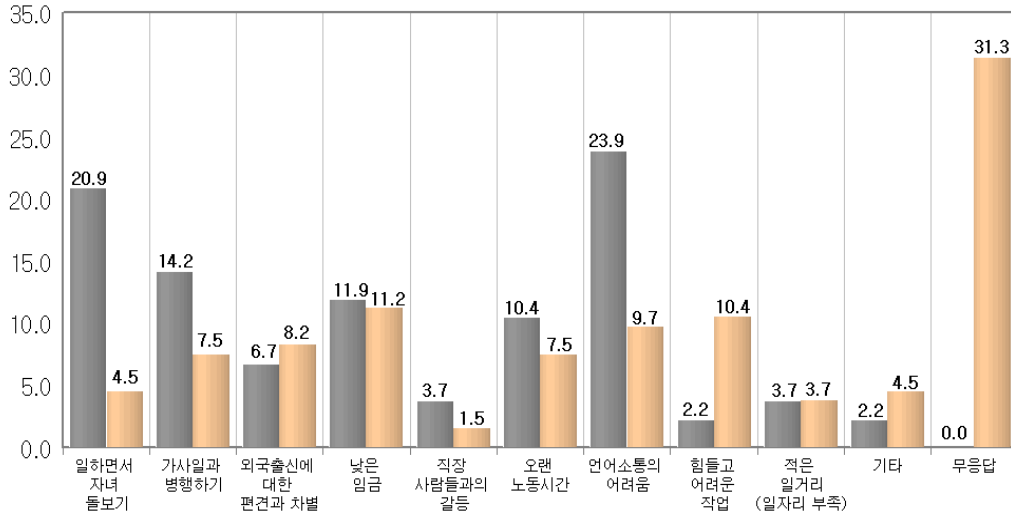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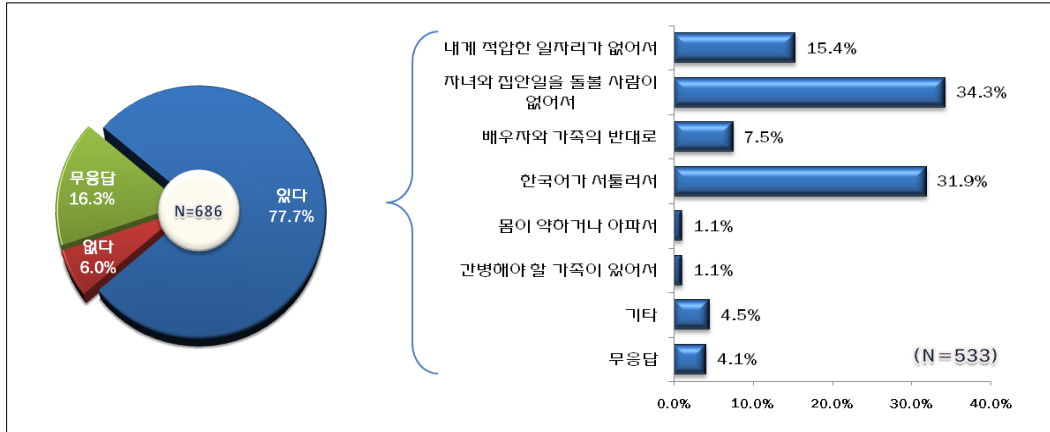


그림 1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 1, 2순위

○ 취업

- 미취업 결혼이민여성의 77.7% 이상이 취업을 원하며 그 동기는 ‘생활비 보충’이 26.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의 생계유지’ 20.5%, ‘자녀의 양육비 충당’ 16.0%, 등 생활비 보충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 ‘자녀와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경우가 34.3%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31.9%)’, ‘내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15.4%)’, ‘배우자와 가족의 반대로(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Ⅱ 그림 2 Ⅱ 미취업사유

- 미취업 결혼이민여성 중 77.7%가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거주기간별로 보면 3-5년 미만의 경우에 취업할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강사/교사직 희망이 18.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판매/영업직(17.8%), 기술/생산직(13.5%), 서비스직(11.6%), 관리/사무직(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II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추진전략

III

1. 취·창업지원 사업의 정책 지향점

-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수립 시 이들을 단순히 가부장주의적 관점에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자녀출산과 양육 등이 강조된 동화정책 대상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함.
- 둘째,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지원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울시 다문화가정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즉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취·창업지원정책은 지역적 특색과, 노동시장의 수요 및 환경변화, 개인환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함.
- 셋째,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단계별로 전문적, 다각적, 체계적, 복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지원정책은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즉 언어상의 어려움, 문화차이, 정보부족 등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욕구도가 다양하므로 결혼이민여성들을 한 집단으로 취급해서 일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야 함.
- 넷째,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능력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결혼이민자의 국적, 거주지역, 가족유형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함. 결혼이민여성의 국적에 따

라 적합 직종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특화될 수 있는 직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제반여건들을 고려하여야 함.

- 다섯째, 기술변화의 가속화, 경쟁의 심화, 소비자 기호의 빠른 변화 등과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결혼이민여성들의 인적자원개발은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정책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니즈조사 및 분석을 전제로 하되 단순히 현재 니즈분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함.

- 여섯째,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인식변화가 요구되므로 경제활동지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를 수반하는 사회활동도 지원하는 등의 쌍방향 지원이 필요함. 즉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교육과 결혼이민여성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쌍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족의 이해, 협조 등은 매우 중요하므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도 요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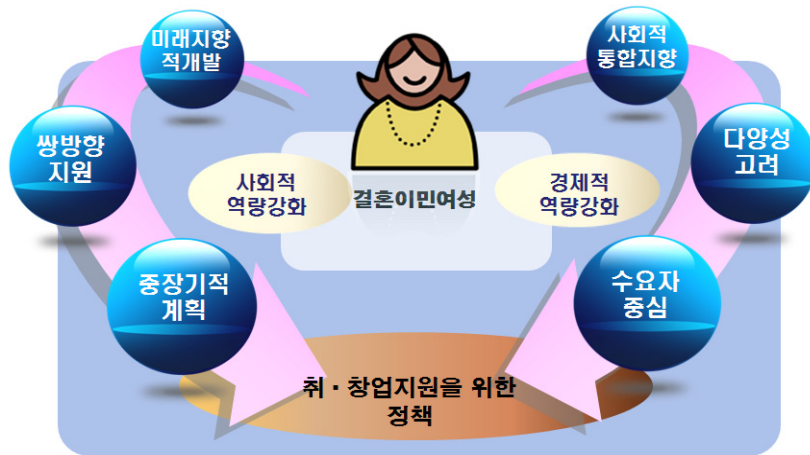


그림 3 정책지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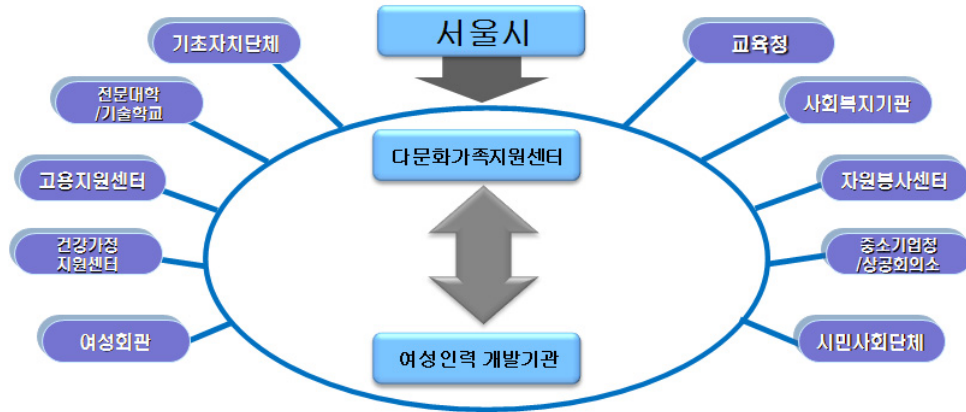
2. 취·창업관련 기관들의 연계강화

□ 취·창업관련기관의 연계방안

-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 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관련기관들의 연계가 필연적이나, 관련기관 담당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거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협력할만한 기관의 정보 부족’, ‘기관 자체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바빠서’, ‘지역 내 사업을 공유할만한 기관이 없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기관 내부에 원인이 있기도 하나 우선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려는 태도가 부족한 상태로 기관들 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각 기관들 간의 연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
 - 취·창업관련기관의 연계강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서울 교육청, 직업학교 및 전문대학, 고용지원센터 등과의 연계강화를 꾀함. 즉 결혼이민여성들의 접근이 용이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점이 되어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각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전문성에 기초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정례화하여야 함. 더 나아가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을 하여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직업기초소양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술교육은 여성인력개발기관, 여성회관 직업기술학교등에서 하고, 구인처 발굴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 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청, 고용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임. 즉 다문화강사교육 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하며 교육청과 서울시가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다문화교육을 의무화하는 지침 등을 내리는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임.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과 관련된 기관들이 수평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소시엄 형태를 취할 수 있음. 관련담당자 설문조사 결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관련 기관 간 컨소시엄형태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 각 직종에 따라 컨소시엄을 꾸리는 관련기관들을 달리하면서 연계가 활성화되면 정보공유와 협력의 단계를 넘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을 공유하면서 서비스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교육 후 취·창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게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하므로 공·사의 연계는 필수적임.



Ⅱ 그림 4 Ⅱ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관련기관들의 연계

□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연계 및 경제사회적 역량강화 등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함. 취·창업 교육 후 실질적으로 취·창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임.

예를 들면 통·번역사가 취업을 하려면 병원 등 의료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 의류수선사는 세탁협회와 인력개발기관과의 연계, 다문화강사는 서울시 교육청, 어린이집 등과의 연계가 필요함.

- 민·관·학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과 행정력을 가진 관의 혁신과 변화가 요구되며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과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요구됨. 따라서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담당자의 교육이 필요하고 컨소시엄 방식 등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함. 또한 네트워크 구성 시 기획 단계부터 민·관·학의 목소리가 다 들어갈 수 있어야 함.

N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IV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1.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 결혼이민여성 적합직종으로는 결혼이민여성과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관련 업무담당자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적합 취업직종으로는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원어민강사, 산모도우미, 계약직 공무원, 네일아트, 바리스타, 이/미용사, 관광가이드 등으로 나타남.
 - 적합한 창업업종으로는 다문화음식점, 인터넷몰, 다문화강사 파견업, 이/미용아트샵, 수공예품점 등으로 나타남.

표 4 | 결혼이민여성들의 적합 직종 및 업종

구 분	내 용
결혼이민여성 취업 유망직종	간병인, 산모도우미 , 검침원, 가사도우미, 방과 후교사 , 아이돌보미, 장기노인요양보호사, 바리스타 , 급식도우미, 조리사, 제과제빵사, 캐디, 매장판매원, 피부관리사, 네일아트, 의류수선사
결혼이민여성 특화직종	원어민강사, 다문화강사, 다문화가정상담원, 한국어보조강사, 통·번역사, 공공기관 및 지자체 이주민 관련 업무 사무직, 다문화음식 , 디자인 형태의 직종, 국제결혼정보회사원, 발마사지요원, 다산콜센터 요원, 지역문화 유적해설사 및 관광가이드, 지역문화 문화예술 상품 제조, 지역특산물 제조 및 판매
결혼이민자 창업 업종	다문화음식점 , 슈퍼마켓, 의류판매, 식품야채판매, 외국어교육학원, 미용실, 피부관리실, 관광서비스업, 수공예품악세서리 판매점, 다문화상품 무역업, 인터넷몰

* 검은 글씨가 다른 직종보다 더 적합한 직종임

2. 적합 직종과 업종에 대한 예시

연구결과 나타난 적합직종 중에서 대표적인 직종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함.

□ 다문화 강사

-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결혼이민여성의 적합 직종으로 다문화강사가 가장 많이 선택됨.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 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가 가장 경쟁력이 있으며 우리 사회에 다문화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므로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직종임. 또한 결혼이민여성이 그 핵심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직종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봄.
- 적극적인 성격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겸비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특화될 수 있는 적합한 직종이며, 학부모 대상 및 기업체 관련 사업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준비된 다문화강사로서 양성 교육을 받아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한다면 전망 있는 경쟁력 있는 직종이라 여겨짐.
-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나아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다문화강의가 개설되어야 하고, 일반시민 교양강좌,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다문화강의를 하도록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방과 후 교실에서 다문화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강사는 자국의 언어와 동요, 요리, 간단한 놀이 등을 통한 문화와 풍습 등을 소개하는 교육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다문화이해 수업을 위해서는 비용이나 준비물품 등이 많으나 보수는 적은 편임. 보통은 1회 강의에 결혼이민여성 2명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 한사람에게 돌

아가는 보수가 너무 적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다문화강의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져 직업으로 갖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 강의내용도 단계별로 심화된 내용으로 다루기 위한 지속적인 강의처 발굴이 필요하고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됨.

□ 통·번역사

- 정부는 결혼이민여성을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에게 통·번역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전국 8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60명이 12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음.⁴⁾
-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이메일 신청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과견서비스를 제공함. 한국체류기간이 2년 이상, 고졸이상 학력을 갖춘 결혼이민여성 중에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한국어능력시험 기준 4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결혼이민자는 일정기간 교육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되는데 월 80만원과 교통비 15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음.
- 문제점으로는 국적별 통·번역사 분포가 중국과 베트남에 몰려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제일 다양한 분포는 7개국으로서 서울, 전북 등이며 6개국은 충북, 충남, 5개국 강원, 경북 등으로 5개 국가 이상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6개 지역으로 전체 지역의 1/3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각 지역에 사는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여성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적별 통·번역사 배치가 필요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임.

4) 지원언어명: 중국(50), 베트남(60), 필리핀(16), 몽골(10), 태국(8), 우즈베키스탄(1), 캄보디아(3), 인도네시아(3), 러시아(6), 일본(2), 네팔(1) 등임

□ 원어민 외국어 강사

- 중국과 필리핀, 일본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이는 언어영역이 전문직임과 동시에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임.
- 이 직종은 도시와 농어촌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종이지만, 도시의 경우 수요자의 기대 수준이 높고 인적자원도 풍부해 대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원어민 강사나 외국어 학습보조자로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자들은 방과후 교실 영어지도사나 영어독서지도사, 학원강사, 외국어 학습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방과후 아동지도사나 영어독서지도사 등은 자격시험이 있어 이에 대비시킬 수 있음.
- 다만 이들은 한국어 실력부족으로 인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의 한계, 리더십 부족으로 인한 학생통솔력 부족 등이 문제되며, 개별적으로 취업을 하고 근무조건도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즉 지역내 원어민 강사수요를 파악하고 강사풀을 만들어 교육청에서 관리하면 바람직할 것임. 또한 보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원어민강사육성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함으로서 체계적인 강사양성과 취업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산모도우미

- 낯선 한국에서 친정부모의 도움없이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시집식구들에게 돌봄을 받거나 비싼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음. 또한 국가에 따라 산후 문화가 다르므로 같은 출신국가의 결혼이민여성들이 산후도우미를 해 주면 친정식구가 도와주는 것처럼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한국생활에 적응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시킨 후 산모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게 함. 후에 산모도우미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 한국인 대상으로 나갈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좋은 직종이라 생각됨.

□ 의류수선사

- 동남아시아 국가의 결혼이민여성들은 손재주가 탁월하므로 섬세하면서도 노동집약적인 일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여성들이 재봉, 의류제작과 봉제인형제작 등 구체적인 선호직종으로 선택하고 있음.
- 의류수선직종은 여성 전통적 직업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접근이 용이하며 거주지역 내 세탁소, 의류판매점 등과 계약을 맺어 하청을 받아 자영업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며, 결혼이민여성 중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은 저연령이므로 여성특유의 섬세함을 살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서울의 경우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권에는 의류봉제업이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이 업종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이는 창업으로도 연계가 가능함.

□ 인터넷 쇼핑몰

- 최근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소비성향이 홈쇼핑,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간접구매가 늘고 있으므로 유력한 창업아이템이며 결혼이민여성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사업초기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는 어려우므로 동업형식으로 각

자 업무 분야를 나누어 운영하고 직업교육으로 배운 것을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커다란 자본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함.

-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가 발생할 일이 적으며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음.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취·창업지원 모델 개발



1. 취·창업 지원 연계 모델 개발(시범실시)

- 대상지역 : 동작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 대상지역 선정이유
 -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많음 :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등은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많은 지역이어서 취·창업 교육에 참여할 결혼이민여성들을 모집하기에 용이함.
 - 수행기관의 우수성 : 이 지역에서 있는 동작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전국 최우수센터로 지정되고 다문화강사양성 경험이 있으며, 동작여성인력개발기관은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경험 많음.
 - 기관접근의 용이성 : 수행기관이 근접한 거리에 있어 결혼이민여성들의 접근과 이동에 용이함.
 - 시설이용의 편리성 : 교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의 육아정보나눔터를 이용해 자녀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창업보육실을 이용해 교육후 실질적인 취·창업으로 나아가기 전 단계의 훈련이 가능함.

- 연계대상기관
지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소상공인협의회, 교육청, 중소기업청,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 직업학교, 고용지원센터 등

○ 추진방법

- 지역내 결혼이민여성과 사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담당관련자와의 회의를 통해 교육직종 선택, 기관간의 업무조정, 교육방법, 추진과정, 취·창업으로의 연계 등 제반사항에 대해 결정.
- 향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 및 개선과제 등에 대한 논의.

○ 연계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주축이 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함.
- 서울시는 취·창업모델개발부터 취·창업예산지원, 교육관리, 취·창업연계까지 시범운영의 전반적인 지원을 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취·창업모델개발, 모델운영매뉴얼개발, 교육관리 등 시범운영에 있어서의 허브역할을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여성 수요조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결혼이민여성 발굴,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취·창업교육실시(상대적으로 기술부분이 덜 강조되는 직업교육 즉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원어민강사 등), 취·창업상담, 취·창업으로의 연계, 상설전시장, 홍보, 창업보육실 운영 등.
- 여성인력개발기관 역할은 사업체 수요조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결혼이민여성 모집, 컴퓨터교육, 상대적으로 기술부분이 강조되는 취·창업교육실시, 취·창업상담, 취·창업으로의 연계, 홍보 등
- 서울시 관련기관, 교육청, 소상공인협회, 고용지원센터 등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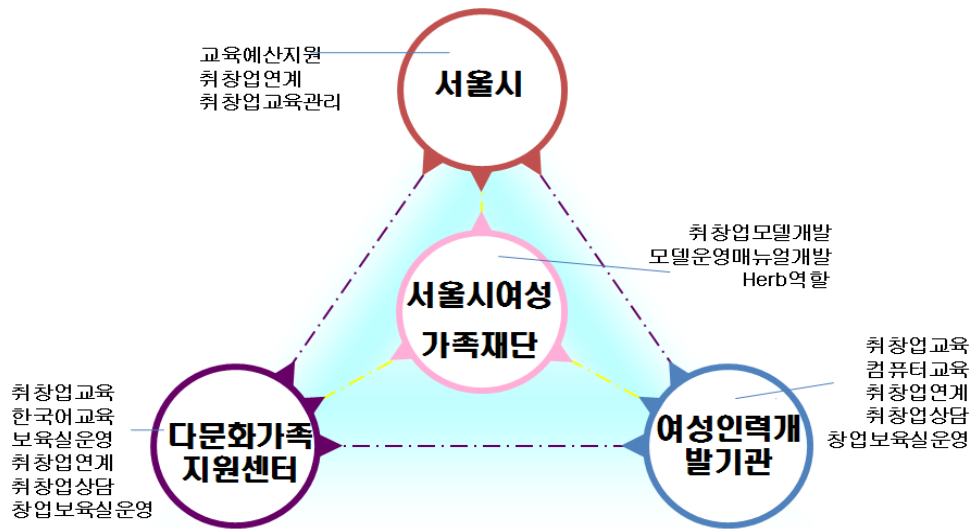


그림 5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관련기관들의 연계 모델

2. 취·창업교육프로그램 실시

□ 취·창업교육 업종

-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경험과 결혼이민여성들과 사업체의 수요조사 등을 기반으로 하고 전문가들과의 회의 결과 단기 교육후 취·창업으로 연계 가능한 직종으로는 실내소품인테리어, 다문화강사, 산모도우미 등으로 결정함.

□ 교육프로그램실시 기관

- 다문화강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복데코-실내인테리어 소품 소호창업(여성인력개발기관), 산모도우미(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여성인력개발기관)

□ 교육기간

- 통상 4개월로 하되 처음 1개월은 한국어교육과 컴퓨터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여 취·창업에 위한 사전교육에 주력하고 그 후에 취·창업교육 실시

□ 교육생모집

- 모집방법: 교육실시기관이 공동으로 모집
- 모집대상
 -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 취·창업 의사가 뚜렷하고 자질이 있으며, 수업진행시 이해와 응용에 무리가 없는 훈련생을 선발
- 교육생 선발방법
 - 1차 서류접수 및 면접 : 신청서 작성 후, 담임 면접 실시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적성과 이해력 및 기본소양과 전망성,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 종합적인 평가
 - 2차 면접 : 정원의 2배 이상 모집 시, 교육담당자, 전문강사, 취업담당자로 구성된 2차 면접 실시, 이를 통해 취업에 대한 계획 재평가
 - 최종선발 : 서류와 면접을 통한 평가 자료를 근거로 본 교육과정을 이수 할 교육생 최종 선발 후 통보

□ 교육과정 운영 계획

○ 교육기간

- 1개월간 취·창업 사전교육 즉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실시
- 3개월간 취·창업교육 실시
- 교육 전 기간중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등은 일정수준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일정 교육시간 이수 의무화)

○ 담임제 운영

- 교육과정 개시할 때 훈련생의 신상과 훈련목적, 앞으로의 계획 등을 파악하여 교육적응을 원활히 하도록 유도
- 매일 지각, 조퇴, 결석, 외출의 정확한 출석률 체크
- 매일 조회, 종례를 통한 집체 결속력 강화
- 수료율 80% 이상만 수료증 수여

○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방안

- 하루 이상 무단결석 시 반드시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결석사유를 확인하고, 훈련과정의 부적응의 경우로 예측될 경우, 별도 상담 실시
-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취업에 대한 개별정보 제공과 수료 후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시킴으로 훈련만족도 향상과 수료의지 고취

○ 취·창업 생활적응을 위해 인턴쉽 과정 적극적으로 개발

□ 사업 1. 행복데코- 실내인테리어 소품 소호창업

- 과정명 : 「실내인테리어소품소호창업」
- 기 간 : 2010.4.5 ~ 7.30(사전교육 1개월포함)
- 대 상 :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 인 원 : 10명
- 교육시간: 총 126시간
- 대상자 :
 - 자국 고교이상 학력 소유자
 - 한국어 중급이상 활용자
 -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자

○ 교육내용

교육내용	총교육시간 (126 시간)		
	강의 (42시간)	실기 (84시간)	중요도
1. 오리엔테이션	12		
1) 개강식	1		☆
2) 직업의식교육	8		☆☆
3) 이미지메이킹	3		☆☆☆
2. 직업전문교육	93		
1) 기초재봉틀 사용법	2	8	☆☆
2) 기초 선패기	3	20	☆☆☆
3) 홈패션기초이론	8	20	☆☆☆
4) 핀큐션만들기, 소품주머니 앞치마, 식탁보, 주방용장갑 등 디자인 및 제작과 코디 방법 실습	8	24	☆☆☆
3. E-BIZ 실기	15		
1)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이해	3	2	☆
2) 도메인 선정 및 등록, 통신판매신고 요령	1	2	☆☆
3) 작품사진 작업	2	5	☆☆☆
4. 기초세법	6		
1) 사업자등록이해,세금계산서, 과세기간 및 대상, 부가가치세신고 등	3	3	☆☆

- 교육 후 활동 : 의류수선사로 공장이나 수선집에 취직하거나 창업
보육실에서 e-mall 창업 준비

□ 사업 2.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강사양성

- 과정명 : 「다문화강사양성교육」
- 기 간 : 2010.4.5 ~ 7.30(사전교육 1개월포함)
- 대 상 : 다문화강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 인 원 : 15명
- 강의시간: 신규 기본교육 60시간/경력자 보수교육 20시간
- 대상자 :
 - 자국 고교이상 학력 소유자
 - 한국어 중급이상 활용자
 - 강사로서의 자질과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자
- 교육내용

교육 내용	총교육시간 (60 시간)		
	강의 (40시간)	실기 (20시간)	중요도
1. 다문화의 이해란 무엇인가.	9		
1) 문화의 구성과 개념	3		☆☆
2) 문화의 일반성과 독특성 (종교, 인종, 민족, 성별 등)	3		☆☆☆
3) 일상생활영역에서 문화적 갈등과 소통		3	☆☆☆
2. 다문화의 차이 및 다양성 (아시아를 중심으로)	27		
1) 여러 나라의 역사, 환경, 생활풍습, 언어 등 (중앙아시아 :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6		☆☆
2) 여러 나라의 역사, 환경, 생활풍습, 언어 등 (동남아시아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등)	6		☆☆
3) 여러 나라의 역사, 환경, 생활풍습, 언어 등 (서남아시아 : 파키스탄, 인도, 네팔, 이란 등)	6		☆☆

교 육 내 용	총교육시간 (60 시간)		
	강의 (40시간)	실기 (20시간)	중요도
4) 여러 나라의 역사, 환경, 생활풍습, 언어 등 (동아시아 : 중국, 대만, 일본 등)	6		☆☆
5) 기타 독특한 문화와 생활풍습	3		☆☆
3. 문화전달 방법론	20		
1) 유아와 아동의 발달 특징	3		☆
2) 대표적인 교구만들기(가면, 음식 등)		6	☆☆☆
3) 문화체험 교구사용 사례 및 워크샵 (놀이, 춤, 의복 등)		3	☆☆☆
4) 교육안 만들기(PPT 자료만들기, 주요사이트 검색)		3	☆☆☆
5) 강의 시연		5	☆☆☆
4. 다문화 감수성 강화	4		
1)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태도 형성	2		☆☆
2) 다문화적 인지능력 향상 및 다문화 정체성, 감수성 강화	2		☆☆

- 교육 후 활동 : 서울형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다문화강사로 활동하거나, 방과후 교사로 활동

□ 사업 3.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양성

- 과정명 : 「산모도우미 양성교육」
- 기 간 : 2010.4.5 ~ 6.30
- 대 상 : 다문화강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 인 원 : 10명
- 강의시간: 신규 기본교육 80시간
- 대상자 :
 - 자국 고교이상 학력 소유자
 - 한국어 중급이상 활용자
 - 임·출산경험자 우대

○ 교육내용

교육내용	총교육시간 (80시간)		
	강의 (42시간)	실기 (38시간)	중요도
1. 산후조리의 이해	3		
1) 한국의 산후조리의 이해	1		☆☆☆
2)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이해	1		☆
3)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활용 - 임산부, 산모, 영유아 등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1		☆
2. 서비스 직업교육	13		
1) 서비스직의 이해	1		☆
2) 서비스 기본자세 및 친절교육	1	3	☆☆
3) 이미지 메이킹	1	1	☆
4) 의사소통의 이해와 기술	1	3	☆☆☆
5) 돌봄서비스직 산재예방법		2	☆
3. 산후조리사의 역할과 직업윤리	8		
1) 산후조리사 역할과 직업윤리	3		☆☆☆
2) 산모·신생아의 권리와 인권	1		☆
3) 현장 실무 사례별 문제 인식 및 해결 (선배도우미 활동 사례 및 워크샵)	2	2	☆☆
4.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4		
1) 다문화 사회와 가정에 대한 이해	1		☆☆
2) 아시아여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국가별 워크샵)		2	☆☆
3) 이주여성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	1		☆
5. 산모, 신생아 및 가족에 대한 이해	6		
1) 산후 산모의 심리적 이해	3		☆☆☆
2) 신생아의 발달특성과 이해	1		☆
3) 가족의 이해	1		☆☆
4) 장애 산모·신생아 가족에 대한 이해	1		☆
6. 산모 돌보기	21		
1) 산모의 영양관리	3	2	☆☆☆
2) 산후 체조		3	☆☆
3) 산욕기 관리	2	1	☆☆
4) 모유수유 성공법	3	1	☆☆☆
5) 모유수유를 위한 가슴마사지	1	3	☆☆☆

교육 내용	총교육시간 (80시간)		
	강의 (42시간)	실기 (38시간)	중요도
6) 정서 지원	1	1	☆☆
7. 신생아 돌보기	13		
1) 신생아 돌보기 및 위생관리	3	5	☆☆☆
2) 신생아 및 영유아 질환과 예방		5	☆☆
8.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		
1)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의 이해	1		☆
2) 의류손질 및 올바른 세탁법	2		☆
3) 위생관리	1		☆☆☆
4) 쾌적한 신체 및 주거 환경 유지하기	1		☆
5) 외출돕기	0.5		☆☆
6) 휴식과 수면	0.5		☆
9. 안전	5		
1)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3		☆☆
2) 응급처지에 대한 기본 기술		2	☆
10. 업무 기록 및 보고	1		
1) 기록과 보고	1		☆

- 교육 후 활동 : 결혼이민여성 대상 산모도우미로 활동하거나 향후
한국인 대상 산모도우미로 활동가능

□ 홍보전략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ON-LINE 홍보
 - 여성인력개발센터 (www.vocation.or.kr)
 - 동작·영등포·금천·관악·구로구청 홈페이지
 -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www.wm1366.org)
 - 각 지역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mfsc.family.or.kr)
- 서울시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 지역신문을 통한 OFF-LINE 홍보
 - 일간신문 홍보
 - 벚룩시장 게재
 - 서남권지역(동작·영등포·금천·구로·관악 등) 구정신문 게재

- 공공기관 홍보안내자료 비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여성인력개발기관
 - 동작·영등포·금천·관악·구로구 등의 구청과 관내 동사무소
 - 서울시, 서울여성가족재단

□ 취·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 동작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한 취·창업 상담
 - 교육기간 중 개별상담을 통해 파악된 수료생의 희망진로와 취·창업 희망업종 및 조건을 바탕으로 수요처를 발굴하여 1:1 개인별 맞춤형 취·창업알선
 - 취·창업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과정수료생 취·창업연계 홍보 및 취·창업알선
 -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취·창업연계 홍보 및 취·창업알선

- 창업지원
 - 창업희망자에게 온라인 창업보육실(www.djemall.kr)에 입점 기회를

-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한계를 극복한 온라인 창업지원
- 동작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내에 창업보육실 운영
- 수료생 동아리 활동 지원
 - 수료생들의 취업 정보공유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기타

- 수료식에는 가족을 초대함으로써 가족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여 취·창업 후 가족 지원을 체계화 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회로 삼음. (특히 남편에게 부인의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는 기회로 활용)
- 결혼이민여성들의 워크숍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완한 후 기본 매뉴얼 북으로 제작하면 차기 신입교육에 부속교재로 활용할 수 있음.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가정 경제 안정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을 전제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 이수 직후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턴쉽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취·창업으로 연계함.
- 취·창업후에도 지속적인 고충상담 및 보수교육 실시.

W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V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 각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수요, 수요처 등의 특성에 따라 적합 직종 개발하여 교육
- 지역 관련기관 연계강화를 통한 모델개발
- 교육 후 취·창업으로의 적극적인 연계

등이 요구되며, 이 외에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지원 및 정비가 필요함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관련 조례 제·개정

□ 취·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개선과제

- 한국어교육 고급반 내지 취업반 개설
- 교육비용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도입
-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프로그램 특화
- 보육문제 해결: 아이돌보미 제도 활용
- 직무소양교육 내지 의식교육 강화
-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
- 여성발전기금 중 일정부분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사업에 지원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용
- 자격취득장려금제 도입
- 취·창업설계상담과 교육훈련수첩제도 활용

- 자격증 취득시험의 보완
- **교육과 훈련의 현장성 강화**
 - 인턴제도 도입
 - 액션러닝의 도입
 - 창업보육 및 창업부스 등 인큐베이팅 활성화
- **지속발전가능한 적합 직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적합한 직종개발: 다문화강사/ 원어민강사/ 통번역사/ 의류수선사/ 산모도우미/ 계약직공무원 등
 - 전문가 수준의 직업군 취업연계
- **체계적 전문적 창업지원구축**
 - 체계적인 창업지원시스템
 - 창업자금의 지원
 - 자활공동체 운영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을 위한 One - Stop - System 구축**
-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화로 연계**
-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 인식전환을 위한 시민홍보
 - 유관업종 취·창업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지원
 - 취·창업성공모델 발굴 및 홍보

참 고 문 헌

- 김종숙외(2008), 새 정부의 여성인력개발과 활용을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노동부(2008), 서울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문현아(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이연
- 민경자외(2008), 민관협력 여성취업모델 연구보고서, 일하는 공동체 실업극복연대
- 손기영외(2009), 경기도 여성창업지원 정책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부(2008), 여성직업훈련기관의 기능 합리화 방안 연구
- 여성부(2009), 여성인력개발사업안내
- 윤인진(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자활모델로서의 창업',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제1호
- 이선주(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명선외(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명선외(2009), 서울시 결혼이민 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09-정책개발-35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지역적 특색에 따른 모델개발-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장명선

발행일 2009년 12월

발행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 810. 5101(代)

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 2999